

재즈를 듣다 14

소울 푸드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스탠 겟츠(Stan Getz)가 2003년 뒤늦게 발매한 ‘보사와 발라드(Bossas & Ballads)’란 음반에 ‘페이조아다(Feijoada)’란 곡이 있다. 이것은 브라질 음식 이름이다.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이 먹지 않고 버린 돼지 다리, 귀, 혀 등을 콩과 함께 넣고 끓인 음식이라고 한다. 북아메리카의 경우에도 서아프리카 출신 노예의 식문화에서 크리올 문화가 결합해 생겨난 음식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드치킨, 바비큐가 그렇다. 노예의 집 안에 주방이 없다 보니 밖에서 요리해 먹던 관습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피지배층이 먹던 하찮은(?) 음식을 가리켜 ‘소울 푸드’라고 한다. 같은 정의를 한국 음식에 적용하면 양반은 먹지 않고 버린 음식으로 만들어 먹던 곶창, 족발, 내장탕, 순대국 같은 것을 소울 푸드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엉뚱하게 한국에서는 ‘영혼의 음식’으로 의미가 승화됐다. 2014년 개봉한 영화 ‘로맨틱 레시피’에서 남자 주인공은 무슨 음식을 먹자마자 어린 시절 기억이 소환되며 감상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현재까지 맥이 이어진 전통 음식 중 향수를 일깨우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로 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콩글리시로서 영미권에선 (노예가 많았던) 미국 남부의 전통 음식을 말한다. 많지는 않지만 제목에 소울 푸드가 들어간 재즈 및 블루스가 몇 개 있다. 대표적으로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이 연주하는 ‘바비큐와 함께 뽀내며 걷다(= Struttin’ With Some Barbecue)’가 있다. 초기 암스트롱 연주 중 주목받는 곡이다. ‘버터빈 블루스(Butter Bean Blues)’는 남부의 콩 요리 중 하나인 ‘버터빈스(Butter Beans)’를 소재로 한 블루스다. 기타리스트 케니 버렐(Kenny Burrell), 스티비 레이 본(Stevie Ray Vaughan) 등이 연주한 ‘소고기를 곁들인 치틀린(Chitlins Con Carne)’에 나오는 치틀린은 원래는 돼지 내장 조림이다.

소울 푸드가 가리키는 지역인 미국 남부 음악을 대표하는 장르로 블루스가 있다. 초기 블루스는 주로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는 소박한 민요에 가깝다. 시간이 흘러 1940년대 무렵, 블루스에 경쾌한 느낌을 주는 요소가 가미된다. 이를 ‘리듬앤블루스(Rhythm & blues)’라고 한다. 당시 백인의 대중음악인 ‘컨트리앤웨스턴(Country & Western)’과 대구를 이룬다. 대표

하는 음악가로 팻츠 도미노(Fats Domino), 헝크 발라드(Hank Ballard), 루스 브라운(Ruth Brown) 등이 있다.

1950년대가 되자 리듬앤블루스에 가스펠, 재즈 등이 섞이며 이른바 ‘소울 뮤직(Soul Music)’이 등장한다. 소울 푸드가 ‘영혼의 음식’이 아니듯, 소울 뮤직 역시 ‘영혼의 음악’으로만 치부하기엔 ‘소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넓고 깊다. 리듬앤블루스와 컨트리앤웨스턴처럼 소울 뮤직은 콕앤롤과 또다시 미묘한 관계를 형성한다. 두 장르 모드 흑인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콕앤롤이 (지미 헨드릭스 같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주로 백인 뮤지션의 관심을 끌었다면, 소울은 그야말로 흑인에 의한, 흑인의 음악이랄 수 있다. 아마도 이때를 기점으로 ‘펑키(funky, 흑인 냄새)’란 말이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펑키는 흑인 특유의 체취를 가리킴과 동시에 흑인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리듬감, 연주 등을 함의한다.

1987년에 ‘더티 댄싱(Dirty Dancing)’이란 영화가 개봉했다. 맘보 춤을 소재로 하긴 했지만 OST에는 60년대 유행했던 콕앤롤이 가득 들어있다. 그중에 조금 결이 다른 음악으로 오티스 레딩(Otis Redding)이 부른 ‘나의 두 팔(= These Arms Of Mine)’이 수록돼 있다. 그는 1941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1958년 가수로 데뷔하였고, 1967년 비행기 추락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른바 ‘소울의 왕(= King of Soul)’으로서 1960년대 가수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시기는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불붙던 때이기도 하다. 그가 처음 부른 노래인 ‘존중(= Respect)’은 이를 상징하는 노래다.

"All I'm askin' is for a little respect when you get home"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집에 왔을 때 나에게 대한 약간의 존중감뿐

이 가사는 “너희 백인들이 우리(흑인)를 먼저 존중해줘야 우리도 너희를 존중해 줄 수 있다”고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1967년에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이 다시 불러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1942년 멤피스에서 태어나 디트로이트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침

례교 전도사이자 가스펠 싱어였다. 대다수 소울 가수와 그렇듯 아레사 프랭클린 역시 어릴 때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며 성장한다. ‘소울의 여왕(Queen of Soul)’이란 별명이 말해주듯 이분이 이룩한 업적은 몇 줄로 서술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미상을 18회나 수상했고, 1987년에 여성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엔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



오티스 레딩



아레사 프랭클린



영화 '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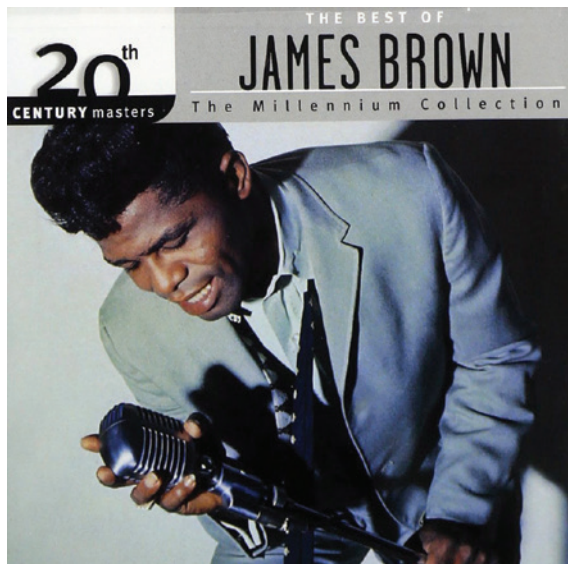
레이 찰스의 앨범 '애프터 아워즈 천재'

했던 사실에서 내공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개인적으로 1980년 개봉한 영화 '블루스 브라더스'에서 철딱서니 남편에게 '생각 좀 하라(= Think)'고 혼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2018년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2021년에 '리스펙트'란 제목의 전기 영화가 2021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레이 찰스(Ray Charles) 역시 교회에서 성장한 '소울의 대부'다. 그의 일생은 2004년 개봉한 영화 '레이(Ray)'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영화에서 레이이는 재즈 피아니스트 아트 테이텀(Art Tatum)을 위대한 연주자로서 높이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실제로도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지만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동병상련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삽입한 건 아닐까란 생각도 든다. 주로 뉴욕 아틀란틱 레이블 및 ABC 레이블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 What I'd say)', '내 맘속의 조지아(= Georgia on my mind)', '당장 떠나 잭(= Hit the road jack)',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 I can't stop loving you)'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소울의 대부'이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1961년에 '애프터 아워즈 천재(= The Genius after hours)'라는 재즈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여러 미국 가수가 함께 부른 1986년의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에 나오셨던 게 기억난다.

소울 음악의 대미를 장식할 인물로는 역시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91년 개봉한 영화 '커미트먼트(The Commitments)'는 아일랜드에서 소울 음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루고 있다. 밴드의 한 멤버가 소울과는 한참 동떨어진 동네에서 왜 하필 이걸 하느냐고 물으니 주인공은 "아일랜드인은 유럽의 흑인이고, 더블린 사람은 아일랜드의 흑인이고, 북더블린 사람은 더블린의 흑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자신들을 '더블린의 흑인'이라며 냉소를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맥주만큼은 기네스 흑맥주를 마신다.) 이들이 모방했던 음악가가 다름 아닌

제임스 브라운이다. 이분의 업적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앞서 소개한 '존중'과 더불어 흑인 인권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로 '크게 소리쳐 - 난 흑인이라서 자랑스럽다(= Say It Loud - I'm Black and I'm Proud)'를 꼽아야겠다. 1900년대 초 흑인은 백인을 향한 열등감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타고난 곱슬머리를 백인 머리카락처럼 보이기 위해 콩크(conk, 약품을 써서 억지로 머리를 펴는 방법으로 상당히 괴롭다고 한다)라고 하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할 정도였다. 1950~60년대가 오며 이런 인식에서 근본적인 자각이 생겨난 것이다. 2014년에 제임스 브라운의 생애를 다룬 '겟 온 업(Get On Up)'이란 영화가 개봉했다. 이 제목은 그의 히트작 중 하나인 '섹스 머신(Sex Machine)' 가사에서 따온 것이다. 처음엔 제목만 보고 저속한 내용이라고 오해했는데, 레게 음악가 밥 말리(Bob Marley)의 '깨어나라, 일어나라, 네 권리를 위해 일어나라(Get up, stand up : stand up for your rights!)'와 같은 메시지를 은유한 게 아닌가 사료된다.



제임스 브라운



영화 '겟 온 업'

왜 재즈를 주제로 한 글에서 소울 음악을 언급하는가? 나의 음악 감상 습관 때문에 그렇다. 한 강도 작은 웅달샘에서 시작하여 탄천, 양재천, 중랑천, 안양천 등 수많은 지류와 연결돼 있듯, 작고 소박한 블루스에서 리듬앤블루스, 스윙, 재즈가 나오고, 앤솔, 소울 뮤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모두는 마치 '인드라의 그물'처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어느 것이든 하나를 잡고 당기면 나머지가 죽 달려 나온다. 재즈만 홀로 있는 게 아니다. 이처럼 연결된 상호 관계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을 때 재즈의 본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 무엇보다 소울 뮤직이 너무 좋다. 재즈처럼 즐겁고 심각하지만은 않고, 댄스 뮤직이면서 경박하지 않다.



도나 썸머



어스, 윈드 앤 파이어

1970년대가 되면 디스코(Disco)가 소울을 계승한다. 1977년 개봉한 ‘토요일 밤의 열기(= Saturday Night Fever)’에서 음악을 담당한 비지스(BeeGees)를 우선 떠올리게 되지만, 진정한 디스코의 제왕은 도나 썸머(Donna Summer)와 어스 윈드앤파이어(Earth, Wind & Fire)라 할 것이다.

디트로이트에 기반을 둔 모타운(Motown) 레코드는 흑인이 소유한 최초 레이블이다. 이른바 ‘모타운 사운드’라고 불린 특징적인 음반들을 발표했는데, 리듬앤블루스, 소울, 펑키, 디스코 등등이 망라돼있다. 스티비 원더, 마빈 게이, 슈프림스, 라이오넬 리치, 잭슨 파이브 등이 여기 소속이었다. 1980년대가 되면 컨템포러리 알앤비(Contemporary R&B) 시대가 열린다.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을 비롯,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 보이즈투맨 등이 여기에 속하는 음악가들이라 할 수 있다. 알앤비는 리듬앤블루스의 앞글자에서 온 말이지만 창법이나 구성에 있어 초기 리듬앤블루스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이 변한들 근본은 변치 않음을 그 이름이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



오티스 레딩
‘나의 두 팔’



아레사 프랭클린
‘존중’



레이 찰스
‘당장 떠나 잭’



레이 찰스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



제임스 브라운
‘크게 소리쳐
- 난 흑인라서 자랑스럽다’



제임스 브라운
‘섹스 머신’